

# “승가의 탁발은 구걸이 아닙니다”

(Begging)

영문 불교용어, 외국인 눈높이 맞춘 표준 채택 절실 목소리 모아져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들에게 주는 이의 공덕을 쌓는 ‘탁발’을 ‘구걸’로 설명하고 있다.

한해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수는 2만 여명에 이른 지금, 영문 불교용어 사용에 있어 그 뜻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영문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원 스님)이 9월 5일 ‘템플스테이 영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조의연 동국대 번역학연구소장은 이날 발제에서 “현재 영문 불교용어 대부분이 음차로 영문화해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현재 사용되는 영문 불교용어의 문제점으로 로마자 표기법 오류, 일관성 결여, 의미의 부정확성을 들고 ‘Templestay Guidebook’ 등 템플스테이 소개서 3종을 분석해 247개 영문 불교용어 표준안을 제시했다.

조 소장이 지적한 의미의 부정확성은

‘bow’ (절하다, 고개를 숙이다)에서 명명히 드러난다.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108배를 ‘108bow’로 표현하는데 조 소장은 오체투지란 의미에서 ‘배’는 ‘prostration’(예배를 위해 엎드림)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소장은 “무념(無念)의 ‘No-Thought’ 표기 또한 아무 생각 없는 상태로 ‘Non-thought’로 표기해야 하며 탁발(托鉢)의 ‘Begging for food’도 격식을 차려 정중히 음식을 청하는 ‘requesting food’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일선 사찰에서 가장 빈번한 오류는 로마자 표기법을 들었다. 예불의 경우 ‘yebul’, ‘yeabul’, ‘yebool’, ‘daily sevice’ 등 표기법이 틀린 채로 제각각 10여 가지로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소장은 로마자 표기 원칙과 함께 보다 직관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음역과 의미를 병기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예외 사항으로 △보살(Bodhisattva)과 같이 세계 공용 불교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며 △일반용어의 경우 음차보다 직관적인 의역용



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조 소장은 “선의 경우 조계종 영문 표기법은 ‘Seon’이지만 외국인들의 이해도가 낮아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Seon(Zen)’과 같이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화두도 ‘hwadu’로 표기되지만 ‘hwadu(the great questions)’과 같은 부기로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감지인 영문 사찰 안내판 누가 읽나”



외국인들이 전국 유명 사찰에 가면 가장 먼저 보는 영문 사찰 안내판에 대한 연구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장민호 금강대 교수는 최근 한글 사찰 안내판과 영문 사찰 안내판의 번역 비율을 계량화해 비교하고 영문 번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내 주요사찰 10 곳을 대상으로 안내판 번역 비율을 조사했다.

장 교수는 논문에서 “현행 일선 사찰의 사찰안내판의 영문안내판 번역 정확 비율은 1.93으로 일반 한영번역시 기준인 1.20(120%)를 훌쩍 뛰어 넘어 가독성에 큰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된 사찰별로는 금산사(2.49) 용궁

사(2.39) 수덕사(2.25) 직지사(2.08) 쌍계사(2.00) 관촉사(1.92) 해인사(1.74) 범어사(1.69) 봉은사(1.64) 화엄사(1.16) 순이였다.

장 교수는 “이는 한자어구가 축소 번역되지 않고 직역형태로 영문 안내판에 우선 번역됐고 추가 부연 설명이 덧붙여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영문번역판의 뻘뻘한 번역으로 인해 외국인 방문객이 영문안내판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영문 특성상 글자 크기는 한글 안내판에 비해 더욱 작아지게 되고 이런 가독성을 고려치 않은 결과로

장 교수는 바람직한 예로 화엄사의 영문 사찰 안내판을 예로 들었다. 화엄사의 확장비율은 금산사 2.49, 수덕사 2.25에 비해 가독성이 뛰어난 1.16을 기록했다.

장 교수는 “화엄사의 경우 독자의 입장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해 필요한 정보는 비교적 자세히 중요치 않은 정보는 요약, 또는 생략한 점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하지만 전반적인 사찰 안내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 기준 마련 및 당국의 일정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상월 스님의 가르침 선율에 담아 노래해

천태종 중창조 상월 스님의 일생이 교성곡으로 담았다.

천태종(총무원장 대행 무원)은 9월 3일 단양 구인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봉축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1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상월 스님의 일생을 담은 교성곡은 ▷서막 ▷탄생 ▷성장 ▷발심 ▷정진 ▷구도수행 ▷소백산 ▷구인사 창건 ▷대오 ▷법어 ▷새불교 운동 ▷천태종 중창 ▷장엄 원력 ▷대열반 ▷대단원의 15장으로 구성됐다.

곡은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여민 국악합스오케스트라, 마하연 국악

실내악단이 김만석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연주됐다. 노래는 김재일(바리톤), 한예진·황혜진(소프라노) 고유경(알토) 김화정(테너) 조승완(베이스) 박애리(판소리)와 관문사 등 천태종 60여 사찰로 구성된 천태연합합창단이 불렀다.

교육부장 세운 스님은 개회사에서 “행사는 대조사의 탄신을 봉축하는 동시에 종단 삼대지표(애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의 가르침을 조망하는 무대”라며 “합창을 통해 천태의 가르침속 회상귀일의 원용사상을 체득하는 자리이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의례 한글화 돼야 가슴으로 불교 느껴”

‘불교 상징의례 한글화’ 고찰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혜총)은 9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 상징의례 한글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교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범상 스님은 포교연구실에서 추진해 온 ‘다비추선작법 한글화의 가치와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범상 스님은 “경전의 한글화 못지않게 의례 한글화가 더 시급하다”며 “특히 다비의례를 비롯 7한 의례는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불교를 만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한글의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기에 수식어와 음율과 같은 형식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경전과 의식문을 한글화하고 이에 맞춰 한국인 정서에 맞는 음율을 부여해 불교의식 전반에 참여성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날 ‘다비추선작법’을 소개했다. 스님이 소개한 ‘다비추선작법’은 조계종 포교연구실의 <한글통일범요집-천도다비의식집>을 재검토한 것으로 ‘천도다비’를 ‘다비추선’으로 개정된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님은 “천도재에 무속적 의미가 적지 않게 포함돼 선행공양을 충칭하는 추선공양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이에 대해 “의례용어는 의례의 의미와 성격, 범주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천도’는 무속에서 불교용어를 차용한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한 검토가 없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효성 동국대 교수는 “다비나 천도는 제로 공덕을 쌓고 회향하는 개념으로 ‘추선’이 그 의미를 더 담고 있지 재고가 필요하다. 정토사상의 극락왕생에서 차용해 ‘다비왕생의례집’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성문 표준범요집 연구위원이 ‘다비 추선작법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에 앞서 행사교육원 교수 정오 스님과 어산작법학교 교수 범안 스님이 참석해 한글화된 오방블레와 연습의례를 직접 시연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4일 북한 조선불교도련맹 심상진 위원장과 진행된 대담에서 “남북불교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불교경전 한글화와 의식 및 수행 체계 한글화에 함께나서자”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식 추석차례 시연

추석을 맞아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불교생활 의례문화원은 9월 5일 불교식 추석차례 시연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포교원 포교연구실에서 3년여 동안 연구한 ‘조계종 불교 상제례 안내’를 바탕으로 재가신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불교식 가정제사와 차례를 그대로 시연했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 수불 스님과 함께하는 간화선 집중수행

동국대 국제선센터

동국대 국제선센터가 한국불교 정통 수행법인 간화선 집중수행 시간을 10월 1~7일 태화산 마곡사에서 마련한다.

태화산 마곡사 및 한국간화선연구소와

함께 하는 이번 수행의 지도법사로는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이 참여한다. 간화선에 관심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세면도구 및 간편복을 지참하면 된다. 010-3205-1754 박기범 기자

## 2011(辛卯年)

# (慶) 國際禪文化交流 及 慧能禪文化節 (祝)

금번 한국 육조선원에서는 중국 광둥 육조사와 공동 주최로 태국, 월남,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대만, 미국 등 8개국어 함께하는 육조혜능 대사의 선(禪)사상을 기리는 선 문화 교류 및 육조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원은 금번 갖게 되는 국제 선 문화 축제를 통해 보다 자유롭고 편안하며 누구에게나 친숙할 수 있는 선불교의 청정한 선풍이 이 땅에 불어와 혼탁한 사회 현실을 청정케 하고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중생들에게 청량한 감로수가 되길 간절히 서원하며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는바입니다.

2011년 9월 일

- 공동 대 회 장 (승가) 석연화. (재가) 담화 이준영
- 공동 봉행위원장 (승가) 석지암. (재가) 김덕환
- 대회 추진 위원장 (승가) 공 산. (재가) 최익화
- 대회 조직위원장 자 운. (재가)
- 사 무 총 장 소 운 사 무 국 장 이원주
- 부 대 회 장 (승가) 범봉, 종섭, 도선, 법장, 건우 (재가) 표상우, 이내철, 한대희
- 봉행부위원장 혜분, 금봉, 경천, 법원, 지원, 선담 (재가) 지정환, 황병권, 원종만

- 집 행 위 원 보광 (재가) 한대희
- 조 직 국 장 범원 (재가) 흥 보 국 장 심은경
- 사 서 실 장 월암 (재가) 대구 새정수회 조준현
- 봉 행 위 원 혜분, 청산, 정진, 무영, 혜양, 오성, 도관, 청운, 선호, 자은, 묘진, 혜천, 청암, 지원, 자인, 능현, 자문, 종니, 지광, 혜원, 봉정, 선담, 약산, 원각, 수인, 법민, 은곡, 고봉, 해명, 혜암, 혜일, 혜광, 관연, 자명, 법연, 법성, 청화, 관연, 자명, 법연, 법성, 청화, 성각, 원덕, 무량, 연계, 법안

주 최 : 한국 육조선원, 세계 선문화, 육조선 교류연맹.

주 관 : 국제 선문화 교류 및 혜능 선 문화절 봉행 위원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KBS, 불교 TV방송국, I.B.S 중앙방송국, 108.TV 연합불교 방송국, 현대불교신문, 중국 선문화 주간, 월간 세계 불교,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 한국 불교 종정 협의회, 법왕청, 한국 불교 종단 총 연합 진흥회, 자유 총 연맹 종교 특별 위원회, 전국 의용소방 연합회, 월남 참전 세계 평화 유지군 동지회, 세계 예술 교류 협회, 세계 불교 지도자 연맹, 지구환경 보존운동본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국민운동 본부, 새 정수회, 나라사랑 국민운동 사회체육 진흥회, 독도 수호 국민 연합, 한국 도교 협회, 16개 불교 종단 및 신행 단체

일 시 : 법요식 - 2011년 9월 26일 오전 9시 (행사기간 9월 25 ~ 28일 4일간)

장 소 : 경북 구미시 박정희 체육관 (경북 구미시 광평동 산 50번지)

연락처 : 02)766-6800, 033)766-2556, F:033)766-2557, 02)744-6300 011-285-6800, 010-4813-6800, 010-3151-2556.